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茶山 丁若鏞 家庭生活觀에 대한 考察

A Study on The Family Life Consciousness of Dasan Jeong Yak-yong for Educational Contents Development

주영애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Young-Ae Ju(jyoungae@sungshin.ac.kr)

요약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가정생활관을 고찰하여 그 의의를 찾고, 실천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산의 가정생활관은 다산시문집, 편지글,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가족관, 의식주생활관, 가정경제관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다산의 가정생활관은 자기관리와 절제, 근검절약과 분수 지키기, 순리적인 나눔과 베품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일상에서 실천적인 노력이 강조되었다. 첫째 자기관리와 절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 효를 실천하기, 가족 간에 화목하기, 독서하기, 선함을 잃지 않기, 심신을 수양하기 포기하기 말고 독립적이고 당당하기, 용모와 안색을 바르게 하기 등이다. 둘째로 근검절약과 분수는 항상 부지런 하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며, 사치를 금하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며, 과음을 경계한 것이다. 셋째는 순리적인 나눔과 베품의 실천은 환경을 닦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지내고, 곤궁함에 대처하며, 사욕을 막고 나누고 베풀어 주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다산의 가정생활관은 오늘날 공유가치, 공동체사회, 복지사회를 구현해 가기 위한 규범과 가치를 담고 있다고 사료된다. 앞으로 다산의 가정생활관에 대한 교육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본고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서 시대를 초월한 다산 정신이 계승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중심어 : | 다산 정약용 | 가정생활관 | 자기관리와 절제 | 근검 | 나눔과 베품 |

Abstract

In this research, the significance and practice on life of Dasan Jeong Yak-Young's family is reviewed. Articles, letter, poetry written by Dasan and research papers regarding to him are mainly referred for the research. Family life consciousness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in terms of family, food clothing and shelter life, and the economy of the family. Dasan's family life consciousness has been organized with self-management, temperance, thrift, sharing and giving for family and others. He emphasized practical efforts in daily life to realize sense of family life. First, Dasan sought self-managing and temperance as follows. He suggested attitude of careful speech and behavior, filial duty, peace within a family, reading, and training the body and mind including nice and independent temperament with being in good shape. Second, Dasan has been taught to practice the following to save money. It is important to be diligent, to live a simple life, to work hard on one's work, and to avoid extravagant behavior and heavy drinking. Third, Dasan emphasized to practice rational sharing and giving. It is to adapt to the environment, to live within one's means, to cope with difficult circumstances, not to have desire, and to practice giving. Dasan's family life consciousness includes the rules and values for implementing a welfare society. The welfare society is a society that shares good values and practices norms. In the future, the content of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to provide education about Dasan's family life consciousness. I hope this study can provide an opportunity that the moral teachings of Dasan can be handed down and practiced in relation to family life.

■ keyword : | Dasan Jeong Yak-Young | Family Life Consciousness | Thrift | Sharing and Giving |

* 본 연구는 2017년 전기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8년 04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6월 05일

수정일자 : 2018년 06월 04일

교신저자 : 주영애, e-mail : jyoungae@sungshin.ac.kr

I.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오늘날은 삶의 의미와 가치가 흔들리고, 물질중심의 가치관이 일상의 삶을 주도해 가고 있다. 우리는 가정보다는 '나', 공동체 보다는 '개인'의 삶을 우선 시 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존재하는 한 '가족'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주제이다. 개인의 존재와 실존성을 담보하는 가족 공동체 삶이란 사회의 존속을 위한 필연이며, 근거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가족의 '가정생활관'에 대하여 논의 해 보고자 한다.

특히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측면으로 과거 조상들의 삶과 가치관, 태도 등을 조명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계승해야 할 중요한 핵심요소들을 재발견[1-7]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시대적 사상이자 위대한 인물의 생활사를 중심으로 가족생활에 관한 가치와 관념을 고찰하여, 그 의의를 재고해 보는 것은 오늘날 가족공동체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살펴 보아야 할 바이다. 가정생활관에서 지켜가야 할 가치와 규범을 찾아, 계승하고 확산해 나아가는 가능성을 도출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사를 보면, 후대에 까지 사상적으로나 생활사적으로도 귀감이 되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삶과 가족생활에 주목하여 논의하였다.

다산 정약용(1762년 6월 16일~1836년 2월 22일)은 널리 알려져 있는 조선 후기 경학자이며 실학의 대가로 시대를 초월한 학자요, 사상가이며, 현대사회에서도 끊임없이 그의 생애와 학문적 업적이 재조명되는 뛰어난 인물이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흙흙신서」, 「여유당전서」 등 500여권의 저술을 통해서 다산은 조선의 부국강병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정치 환경을 위해, 백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많은 고뇌의 결과를 후대에 남겼다. 다산은 사물과 현상의 원리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학자이면서도 무한한 감성을 시로 풀어낸 시인이자, 차인(茶人)이었다. 다산 사후(死後) 18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에도 그의 실용적 학문의 뜻을 계승하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다산의 사상적 영향력은 지대하다.

다산연구소[8]에서는 다산 정신의 계승과 학술적 실천적 과제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산 생각이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에는 실학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다산의 유배지인 진라남도 강진과 남양주시에서는 다산 정신을 이어가는 문화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한편 사회교육차원에서 다산의 자녀교육내용을 적용한 부모교육 강좌도 진행되며 '다산 정신'을 실생활에서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철학과 문학을 비롯하여 경제학, 사학, 공학, 농학, 차학 등 광범위한 제 학문 분야에서 다산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다산의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다산은 인생의 과란과 우여곡절을 어느 누구보다도 혹독하게 겪었던 인물이며, 오랜 유배 생활을 했으므로 그와 관련한 연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다산이 18년 간 유배생활 때 아들에게 보냈던 글들이 「여유당전서」에 남아있고, 가족에게 쓴 '하피첩'[9](국립민속박물관/보물 제 1683-2호)이 발견되면서 다산의 가족관과 가정생활에 대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다산가의 가족윤리를 보여주는 「거가사본(居家四本)」의 공개[11]를 통하여 다산의 가(家)의식을 연구하는 등 다산의 가족관[11-13]과 자녀교육관[14-18]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산의 가계는 천주교 박해와 신유사옥으로 인하여, 큰 시련에 맞닿은 가족 위기를 겪었으며, 다산은 가족과 생이별하고 천리 밖에서 고난 속에 유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은 머나먼 유배지에서도 가장으로서 서신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가정생활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전달하여 결속하면서 고난을 극복하게 했다. 이는 다산 가계의 가족사 뿐 아니라, 오

1) 하피첩은 보물 제1683-2호로 1810년 정약용이 전남 강진에서 유배하던 때 부인 홍혜완이 보낸 지마에 두 아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글을 적은 서첩이다. '하피(霞帔)'는 노을 빛깔의 붉은색 치마란 뜻으로 조선 시대 사대부 여인의 예복을 가리킨다. 선비의 마음가짐, 삶을 풍족히 하고 가난을 구제하는 방법, 효와 우애의 가치 등이 적혀 있어 정약용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본래 4첩이었으나 3첩만 전해진다. 3첩 중 1첩은 박취 문양, 구름 문양이 그려진 푸른색 종이가 표지로 사용됐고 2첩은 미색의 표지를 갖고 있으나 3첩 모두 붉은색 면지가 사용돼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10월 보물 제 1683-2호로 지정됐다. 2015년 10월 국립민속박물관은 하피첩을 언론에 공개했다.

늘날 가정생활관에 대한 연구에도 참고할 자료로 사료된다.

최근까지 현대 한국사회는 6.25 남북전쟁으로 가족들이 생이별하는 위기와 고통을 겪었으며, 이 후에도 국가적 사건과 사회문제가 된 5.18민주화운동(1980), 삼풍백화점 붕괴(1995), IMF 외환위기(1997), 세월호 사건(2014),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7), 빈발하고 있는 지진과 화재, 북한 핵과 관련된 남북미의 정치적 협의(2018) 등 각양각색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 위기적 상황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가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심한 혼란과 위기를 겪었다. 우리사회는 위기를 겪는 취약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19]하고 있고, 2017년 행복도가 OECD 국가 32개국 중 31위에 머무는 상황을 보면, 현 시점에서 가정생활관과 가족의 삶에 대한 제고는 당연히 필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신유사옥의[20]으로 인하여 다산의 가족이 겪은 고통은 현대의 가족이 겪은 사건과 다를바 없는 가족과 개인의 위기였을 것이다. 시대에 따라 가족이 겪는 고통과 위기의 경중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산의 가정생활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재고하는 것은 오늘날 가정생활관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후 다산 정약용의 가정생활관을 중심으로 한 ‘가정생활’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육에 필요한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산의 가정생활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각 문헌과 자료의 고찰을 토대로 하여 다산의 가정생활관에 담겨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실천성에 대하여 재고하였다. 역사적 인물의 개인 생활사는 그가 존재했던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따라서 생활사는 당시 사회문화 속에서 성장한 개인의

성장환경을 비롯하여 생활관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고찰은 개인의 생활이 그 문화의 중요한 측면은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문화 연구의 한 방법이며, 생활사연구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산이 활동했던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더불어 그의 저술과 선행연구 등을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오늘날 가정생활에서 되새길 의의와 계승적 요소를 재고하는 해석적 연구로 전개하였다.

선행연구[11]에 따르면 다산의 가(家)의식을 「거가사본」을 중심으로 제가·치가·기가·보가로 구분하여 보았다. 이 연구를 확장시켜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관에 관한 고찰을 위해 다산의 시를 비롯하여 편지글, 선행연구, 실학박물관 자료, 관련 단행본 등을 중심으로 추가하여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정생활의 영역이란 의식주생활, 가족생활, 가정경제생활, 의례생활, 여가생활 등으로 구분[21-23]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고찰한 다산의 기록을 보면, 의례나 여가생활 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고, 의식주생활과 가족생활, 가정경제생활 중심으로 언급되어 있어, 가정생활관을 세 가지 영역으로 축약하여 가족관, 의식주생활관, 가정경제관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다산이 생존했던 시기는 조선조 말 영조시대부터 현종 시대까지로, 부계중심의 유교적인 가족 윤리와 가치가 무엇보다 강조되었고, 임란과 호란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었던 때였다. 당시는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생존을 고민하고 해결해가는 것이 당면했던 과제가 되었을 것이므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삶을 위한 궁극적인 질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산의 가정생활관은 가족생활과 의식주생활의 유지, 궁핍한 가정경제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이 처한 위기가 이렇듯 시대적 정치적인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 가족은 더욱 강하게 결집하여 극복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관이란 가족관, 의식주생활관, 가정경제관으로 구분한다. 가족관은 가족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관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효도관, 부부관, 형제관, 자녀교육관을 등을 포함한다. 의식

2) 1801년(순조11년) 정조 사망 후 순조가 11세로 왕위에 오르면서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고, 정순왕후의 친 오라버니인 김귀주 중심의 벽파가 정권을 장악, 그들과 대립하던 남인 시파의 숙청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주생활관은 삶의 기본인 의식주와 관련된 의식과 규범을, 가정경제관은 가계관리를 위해 재물을 구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의식과 규범을 말한다.

II.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가족생활

1. 생애와 시대적 배경

다산은 조선 후기인 영조(1762년)로부터 헌종(1836년) 시기까지 생존한 인물이다. 당시는 사상적으로 천주학의 유입으로 갈등과 혼란의 시기였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경제적 기반의 위기로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었던 변화의 시기였다.

1724년 영조(1724~1776)는 즉위하면서 왕권강화에 저해를 막고자, 노론과 소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탕평책을 썼으며, 영조에 이어 정조(1777~1800)도 선왕의 왕권강화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면서 학문연구에 힘을 기울이고, 문화중흥을 이루었다. 그렇지만 영조의 탕평책에도 불구하고, 당쟁은 계속되어 정쟁의 불씨가 남아 있었고, 1762년(영조 38년) 사도세자의 죽음과 함께 당쟁은 주로 남인계열인 시파와 대부분 노론인 벽파로 나뉘는 구조를 만들었다. 정조는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남인세력을 등용하여 정치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규장각을 통해서 학문정치를 구현하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정조는 지방인재의 선발에도 관심을 가졌고, 화성건설과 선진적인 농법 및 농업경영 방식을 시험적으로 추진하고, 통공정책을 통해서 자유로운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당시의 어려운 시대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혁정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조 사후, 순조(1801~1834)가 즉위하면서 영조의 계비인 정순대비 김씨가 수렴정정을 시작하면서 정치적 판국은 크게 변화하였고[20], 다산의 가계는 크나큰 위기를 겪었다.

1801년 다산 일가의 희생과 몰락을 가져온 신유사옥은 서학인 천주학을 추종한 남인 시파계 학자들이 대거 처형되는 정치적 희생과도 맥을 같이 한다. 다산의 맏형인 이승훈은 정조 7년(1783년) 겨울에 부친을 따라

연경(베이징)에 들어가 서양인 사제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천주교 서적을 갖고 돌아와 천주교회를 창설하고, 그 확산에 힘을 기울였다. 정조 10년에 조정에서는 이러한 천주교의 움직임에 대하여 사학(邪學)이라고 규정하여 법으로 금하였으나, 정조 시대에는 심한 박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조 사후 순조가 즉위하면서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급기야 신유사옥으로 이어졌다. 이가환, 권철신은 옥사하고, 다산의 형인 정약중, 맏형인 이승훈은 참수 당하였으며, 다산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어 가서 죽고, 다산은 강진으로 유배되어 18년 동안 고난을 겪었다.

다산의 학문에 영향을 미친 인물은 이익, 이벽, 이가환, 이승훈 등이다. 다산은 이가환과 이승훈을 통해서 이익의 유고를 얻어 보고, 그 학문에 감동했고, 더 나아가 독자적인 학문세계를 넓혀 갔다[8]. 1783년 회시에 합격, 경의진사가 되어 어전에서 「중용」을 강의하고, 1784년 이벽으로부터 서학을 접하게 되었다. 그 후 1789년 식년문화(式年文科) 갑과(甲科)에 급제하여 회릉직장(禧陵直長)의 벼슬을 시작으로 경기암행어사, 사간원 사간, 병조참지, 형조참의 등을 두루 역임했다. 천주교 인이라 하여 같은 남인인 공서파의 탄핵을 받고 유배되었다가 10일 만에 풀려나와 지평으로 등용되었다. 1792년에는 수찬으로 있으면서 서양식 축성법을 기초로 한 성제와 기중가설을 지어 올려 수원성의 축조에 기여하였다. 1794년에는 경기지역 암행어사로 활동했고, 1795년 병조참의를 지냈으나, 주문모[20] 사건에 들켜 형인 정약전과 함께 연루되어 금정도찰방으로 좌천되었다가 규장각의 부사직을 맡았고, 이후 모함을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학문적으로는 유형원과 이익을 잇는 실학의 중농주의적 학풍을 계승하였고, 북학파의 기술 도입론을 수용하여 실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조선 후기의 실학파[20]는 세 유파로 정리 해 볼 수 있는데, 성호이익을 대표로 하여 농촌에서 몰락해 가는 소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인 ‘경제치용파’를 비롯하여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상공업의 발전을 통감하면서 도시서민층의 소시민적 생활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관심을 둔 ‘이용후생파’, 추사 김정희를 필두로 사회개혁의 정렬이 드러나지 않고 청조 고종학

의 성과를 받아들이며, 학문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근대적 과학 연구 태도를 심는데 기여하며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을 연결 짓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실사구시파’로 볼 수 있다. 한편 다산은 위와 같은 경세치용파와 이용후생파의 장점을 아우르며 실사구시파의 큰 추동력이 되었다. 다산의 학문적 연원은 성호학맥으로 이어지고, 실학사상은 경학, 성리학, 예학 등 도학의 전통적 학문영역을 기초로 하면서 양명학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제도의 개혁을 추구하는 실학적 관심과 서학의 과학 및 자연철학 등을 수용하는 개혁적인 의식을 담고 있다.

다산은 신유사옥으로 인하여 향리에서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황사영백서 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이배되어 오랜 시간을 보냈다. 18년간 전라도 강진에서 지낸 유배기간 동안 다산은 학문 연구에 매진했고, 실학적 학문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당시에 처해진 사회현실을 반성하고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다산은 1818년(57세)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60세에는 《사대고례산보》를 지었으며, 회갑 때에는 생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자신의 묘지명인 《자찬묘지명》을 짓고, 이 가환 권철신 등 신유사옥 때 사형당한 이들의 묘지문도 지었으며, 68세에는 「흠흠신서」, 「아언각비」 등을 저술하였다[8][9][20]. 이와 같은 정치적, 사상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다산은 중농주의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2. 가족생활

다산의 생애를 4단계로 나누어 보면, 유년 수학기(1762년-1789년), 사환기(1789년-1801년), 유배기(1801년-1818년), 해배이후(1818년-1836년)로 구분[8][9][20]할 수 있다.

다산은 진주목사(晋州牧使)를 역임했던 정재원(丁載遠)과 해남윤씨 사이에서 4남 2녀 중 4남으로 1762년 6월 16일 광주(현재 경기 남양주시)에서 태어났다. 다산의 형제는 큰형 정약현, 둘째 형 정약전, 셋째 형 정약중이 있으며, 서제로 정약홍과 두 여동생이 있었다. 어머니인 윤씨는 윤지충의 고모이며, 정약현의 형수는 이벽의 누이다. 다산의 친가와 외가, 처가는 남인계열의 학

자였다. 본관은 나주(羅州)이며, 자는 미용(美鏞), 송보(頌甫), 호는 다산(茶山), 삼미(三眉), 여유당(與猶堂), 열수(洌水)열로(洌老), 열모(洌髦), 철마산초(鐵馬山樵), 사암(俟菴), 초계(蒼溪)등 이고, 시호는 문도(文度)[8][9][20]이다.

다산의 유년 수학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어려서부터 뛰어났던 다산을 보여주는 자료를 참고해 볼 수 있다. 네 살 때부터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하여 일곱 살에 이미 오언시인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운 것은 땅의 멀고 가까움이 달라서라네.(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를 지어 그 총명함을 보여주었다[8]. 일곱 살에는 천연두를 앓았는데, 오른쪽 눈썹 중간 두 곳에 흉터를 남겨 눈썹이 세도막이 났다고 하여 스스로 삼미자(三眉子)라 하였다. 본격적인 공부는 아버지께 열 살 때(1771년) 경사(經史)와 사서(史書)를 배우면서 시작되었다. 어머니 해남 윤씨는 다산이 10세 전(1770년 11월 9일)에 돌아가셨고, 이후 다산은 큰형 정약현의 아내인 경주이씨 형수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15세에 관례(1777년 2월 15일)를 치른 후, 홍혜완(1761-1838)과 혼인(2월 22일)하였다. 1783년 9월 장남 정학연(丁學淵)이, 1786년 7월에는 차남인 정학유(丁學游)가 태어났다. 다산의 아버지 정재원은 다산의 둘째 딸 효순이가 출생하던 해인 1792년 4월 9일에 돌아가셨다. 한편 다산은 유배기간 동안 강진에서 생활하며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냈지만, 아들과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자녀교육에 힘썼고, 자녀들에게는 폐족으로서의 고통이 있더라도 가계(家誡)를 지키도록 당부했다. 1818년(순조18년) 해배이후 초천에 머물며 살다가 1836년 2월 22일 회혼례를 맞이한 날 고향 마현리에서 일생을 마감하였다. 다산은 가정적으로는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아버지로서, 오랜 시간 아내와 떨어져 지낸 것에 대한 깊은 회환을 가졌던 남편으로서, 실학의 대학자로서, 자연과 벗한 감성 충만한 시인이자 차인(茶人)[24][25]으로서 일생을 살았다.

Ⅲ. 다산 정약용의 가정생활관

1. 가족관

다산의 가족관은 직계가족 뿐 아니라 방계가족까지 확대된 가족관계를 아우르는 규범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효도관, 부부관, 형제관, 자녀교육관을 중심으로 보면, 그 핵심적인 내용은 효도, 화순, 우애, 화목, 군자의 삶 등으로 축약해 볼 수 있다.

1) 효도관

효는 인간관계에서 모든 행위의 기본이며 규범이 되는 덕의 근본이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효는 부모의 공경과 존경, 봉양, 시봉, 순종, 나아가 형제 친척간의 돈독, 상제례, 봉제사, 양지, 입신양명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배움과 익힘의 자세는 많이 아는 것에 강조를 두기 보다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효와 공경의 윤리의식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다산은 가족관을 효(孝)·제(悌)·자(慈)로 재편성하고 오교(五敎)³⁾를 총괄하였다. 그리고 강령은 명덕(明德)으로 인륜을 지키는 행동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산이 도(道)를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으로서의 도리로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4]. 다산은 대학(大學)의 삼강령(三綱領) 팔조목(八條目)에서 효(孝)는 상향적인 것이며, 제(悌)는 상호관계적인 것으로 자(慈)는 하향적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가족관계에서 효는 부모님께, 제는 형제자매간에, 자는 부모가 자녀에게 실천해야 하는 도리로 본 것이다. 이는 가정윤리이며, 가족관의 핵심이 되었다. 이러한 덕목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가능하게 하므로, 세상의 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람을 알아보려면 우선 가정에서의 행실을 살펴야 하며, 옳지 못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비춰보아 스스로 그러한 잘못이 있을까 살펴보아야 한다⁴⁾고 하였다. 다산은 학식이 높고 글이 훌륭해도 효를 실천하는 근본을 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언급해왔다.

다산이 두 아들에게 순종과 시봉의 효에 대하여 '아버이를 섬기는 일은 그 뜻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인들은 의복이나 음식, 거처하는 것에 관심

이 많으므로 어머니를 섬기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유의해야만 효성스럽게 섬길 수 있을 것..... 떠나올 때 보니 너의 어머니 얼굴이 몹시 안됐더라. 늘 잊지 말고 음식 대접과 약시중 잘 해 드리거라⁵⁾라고 하며, 어머니를 모시도록 당부했다. 부모의 곁에서 의식주를 돌보는 시봉(侍奉)의 효를 실천하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강조했다. '너희 형제는 새벽이나 늦은 밤에 방이 찬가 따뜻한가, 항상 점검하고 요 밑에 손을 넣어보고 차면 항상 따뜻하게 몸소 불을 때드리되 이런 일은 종들을 시키지 않도록 해라. 그 수고로움도 잠깐 연기 쏘이는 일에 지나지 않지만, 네 어머니는 무엇보다 더 기분이 좋을 것인데, 너희들도 이런 일을 왜 즐거이 하지 않느냐? 어머니와 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불효를 해서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한탄하고 있을 때 남녀종들은 그 틈을 노려 주인마님의 상에 장 한 숟가락이나 맛있는 과일 하나라도 더 올려 환심을 사고 골육간의 사이를 더욱 이간시키려고 할 것인데 이것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잘못하기 때문이지 남녀종들이 나빠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마땅히 이런 것을 거울삼아 온갖 방법을 다 짜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도록 하라. 두 아들이 효자가 되고, 두 며느리가 효부가 된다면 나야 유배지인 금릉에서 이대로 늙어 죽는다 해도 아무 유감이 없겠다. 힘쓸지어다⁶⁾.

아버이를 섬김에는 뜻을 받드는 양지(養志)가 크고, 스스로 효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⁷⁾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고부관계가 화락하도록 아침저녁의 문안이나 음식장만, 거처를 살펴드리는 등의 일들을 잘 해 나갈 것⁸⁾을 아들에게 당부하였다.

2) 부부관

조선시대의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은 강(強)하되 (和)해야 하고 부인은 순(順)하되 바라야(正)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와 같이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혜왕후의 「내훈」 송시열의 「계녀서」 이덕무의 「사소절」 등 조

3) 「여유당전서」. 다산 시문집 제21권 /서(書)

4) 「여유당전서」. 다산 시문집 제 18권 /가계(家誡)

5) 「여유당전서」. 다산 시문집 제21권 /서(書)

6) 「여유당전서」. 다산 시문집 제21권 /서(書)

7) 「여유당전서」. 다산 시문집 제18권 /가계(家誡)

8) 「여유당전서」. 다산 시문집 제21권 /서(書)

선시대 여러 규범서에 수록되어 있다. 다산은 ‘규문에는 예(禮)가 없으면 온갖 재앙이 일어나 몸이 망가지고 집안이 망한다’⁹⁾고 하였다. 다산의 18년간 유배기간 동안 다산의 아내는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남편 없이 자녀 양육과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에 심리적 정서적 육체적으로도 힘들어 때를 보냈을 것이다. 시인의 풍부한 감성을 지닌 다산에게는 남편 없이 지낸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대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다. 다산의 부부관에 대한 내용을 문헌을 통해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다만,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정성껏 모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남편으로서 아내 곁에서 함께 하지 못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배시기를 보내고 해배된 이후에 회혼례를 맞이하면서 시를 통해 그의 마음을 표현했다. 회근시(回筵詩)¹⁰⁾는 다산의 마지막 글이며, 부부의 인연과 부부관계에 대한 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부부가 거처하는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떠나서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라 하였고,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자손들도 부부간에 화락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3) 형제관

집안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형제들이 우애와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하피첩」 1첩에서는 ‘효제(孝弟)는 인(仁)을 실행하는 근본이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서, 효제가 돈돈한 행실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오직 백부와 숙부는 형제의 자식을 자기자식처럼 여기고, 형제의 자식이 백부와 숙부를 친아버지처럼 여기며

사촌 형제를 친형제처럼 서로 사랑하여 혹 어떤 사람이 와서 열흘이 지나도 누가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가 누구의 자식인지를 끝내 알지 못하게 할 정도가 돼야, 겨우 번창하는 가문의 기상이라고 할 수 있다’¹¹⁾고 하였다. 다산은 가문이 번창할 때에는 형제간에도 화목을 잃지 않지만, 원망이 생기고 빈곤하게 되면 화목을 잃기 쉽다는 것을 아들들에게 경계하여 당부하였다. 어려움에 처해 본 사람들은 그러한 처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따라서 다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더욱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학」 외편에 있는 가언이나 선행을 본받고, 잠시라도 잊지 말도록 전했다. 한편 다산은 유배지에서조차도 귀양살이 하는 형님의 일을 생각하며, 형제애의 소중함에 대하여 표현한 바 있다.

이외에 다산의 큰형인 정약현의 아내인 큰형수(이벽의 누이)의 묘지명을 보면, 형수는 아홉 살(1770년)에 어머니를 잃은 다산에게 어머니 역할을 대신 해주며 희생을 했다. 그의 형수인 경주이씨는 1750년 3월24일에 태어나 15세에 정약현과 혼인하였고, 1780년에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 다산의 조부모와 부모의 묘역에 모셨다. 다산의 성장기에 돌보아 주었던 형수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운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바다. 또한 다산은 아들들에게 백숙부를 섬기는 것도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하고, 나아가 아이들에게도 모범이 되도록 하라¹²⁾고 하였다. 이렇듯 다산은 자신의 형제 우애는 물론, 자손들에게도 자신의 형제 뿐 아니라 종형제를 아끼고 우애 있게 지내야 함을 강조했다. 다산은 형제는 자신과 더불어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므로 형제란 곧 나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형제관계를 하나의 나무와 가지에 비유하면서, ‘형은 먼저 태어난 나이고, 아우는 뒤에 태어난 나라고 보았다. 다만 얼굴모양과 나이가 다를 뿐이고, 둘로 구분하여 서로 우애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소원하게 하는 것이니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¹³⁾라 하여 형제는 자신

9) 『居家四本』 <齊家> 閨門之中 少了箇禮字 便自天翻地覆 百禍千殃 身亡家破 皆從此起.

10) 1835년2월 22일은 다산이 부인 홍씨와의 회혼례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회근시는 다음과 같다. 六十風輪轉眼翻 櫻桃春色似新婚 生離死別催人老 戚短歡長感主恩 此夜蘭詞聲更好 舊時霞被墨猶痕 剖而復合眞吾象 留取雙瓢付子孫 (육십년 세월 눈 깜빡할 사이 날아갔는데도 짙은 복사꽃, 봄 정취는 신혼 때 같구려. 나고 죽는 것과 헤어지는 것이 사람 늙기를 재촉하지만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성은에 감사하오. 이 밤 <목란사> 소리 더욱 좋고, 그 옛날 치마에 먹 자국은 아직도 남아 있소. 나뉘었다 다시 합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니 한 쌍의 표주박을 자손에게 남겨 줍시다.

11) 「하피첩」 1첩, 孝弟爲行仁之本. 然愛其父母, 友其兄弟者, 世多有之, 不足爲敦行. 唯伯叔父視昆弟之子猶己子, 昆弟之子視伯叔父猶親父, 從父昆弟相愛如同胞, 使他人來館者閨日踰旬, 終不知孰爲孰父孰爲孰子, 方纔是拂家氣象.

12) 「여유당전서」. 다산 시문집 제 18권 /가계(家誡)

13) 「여유당전서」. 다산 시문집 제 21권 /서(書) 곡산향교를 효유하

과 동일한 존재라고 여겼다.

4) 자녀교육관

다산은 항상 자녀를 걱정하는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유배지에서 아들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자녀 건강을 염려하며, 독서를 게을리 하지 말고, 선비로서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함을 당부하며, 아버지로서의 소망을 간절하게 전했다. 그러나 편지글로만 아들들에게 당부한 것이 아니었다. 먼저 자식을 잃은 아버지로서 그 슬픔을 나타내며, 자식을 잃은 아내 걱정을 했고, 아들들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당부하는 편지¹⁴⁾를 보냈다. 유배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산은 ‘농(農)’이를 잃었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지 못한 애절한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했다.

다산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로서의 따뜻한 마음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폐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녀에게 단호하게 가르쳤다.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들을 유배지로 오게 하여, 직접 아버지로서 가르침을 준 경우도 있었다. 다산은 자녀를 곁에 두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표현했다. 그 이유는 ‘첫째 마음과 행동을 경계시키고, 둘째 안목이 좁아지지 않도록 하고, 셋째 경학(經學)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려 함’¹⁵⁾이었다.

다산은 아들들이 군자로서 살아가기를 희망하면서 그 세부적인 가르침도 제시해 두었다. ‘화(禍)와 복(福)의 이치는 옛 사람도 의심한지 오래 되었다. 충신과 효자가 반드시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며, 악하고 방종한 자가 반드시 박복한 것도 아니다. 그래도 선을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므로, 군자는 힘써 선을 행할 뿐이다.’¹⁶⁾ 라고 하여 선을 행하는 군자의 도리와 마음가짐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자는 의관을 정제하고 시선을 존엄하게 가지고 정신을 집중하여 말없이 단정하게 앉아 마치 진흙으로 빚은 사람처럼 엄숙하고, 그 말은 심오하고 엄정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못사람을

위업으로 복종시키고 명성이 퍼져 마침내 오래 멀리 갈 수 있다. 만약 나태하고 산만하며 허튼소리를 섞어놓기까지 하면, 그 말이 이치와 법도에 들어맞는다고 해도 아무도 기꺼이 믿지 않아, 생전에 기반을 세울 수 없고 사후에는 자연히 점점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사리로 볼 때 당연하다.’¹⁷⁾ ‘군자로서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용모의 움직임[動容貌], 말을 함[出辭氣], 안색을 바로 하는 것[正顏色]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고, 이를 힘쓰지 못한다면, 남들보다 뛰어난 식견이 있어도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는 것’¹⁸⁾을 ‘논어’ 태백에 실려 있는 증자(曾子)의 말을 인용하여 당부하였다. 또한 사물잠(四勿箴)¹⁹⁾을 지키도록 하였다. 사물잠은 「논어」의 안연편에 언급된 비례물시(非禮勿視) 비례물청(非禮勿聽) 비례물언(非禮勿言) 비례물동(非禮勿動)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자기를 절제하고 삼가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하피첩」 2첩에는 ‘사대부의 마음은 광풍제월(光風霽月)처럼 털끝만큼도 가려진 곳이 없어야 한다. 하늘에 부끄럽거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을 일체 범하지 않으면, 자연히 심광체胖(心廣體胖)해져 호연지기(浩然之氣)가 생긴다. 만약에 조그만 재물이라도 탐하여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있으면, 바로 이 호연지기가 좋아 약해질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되느냐 귀신이 되느냐의 갈림길이다. 너희들은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²⁰⁾고 하였다. 허황되고 근거 없는 과장된 말을 하지 말고, 항상 말조심을 하라는 경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을 보면, ‘거듭 말하는데, 말[口業]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체가 모두 완벽해도 한 구멍이 우연히 새면 도로 깨진 항아리와 같듯이, 모든 말이 다 믿음직스러워도 한마디 말이 우연히 허황되면 도로 귀신의 무리와 같게

여 효(孝)를 권장하는 글

14) 두 아들에게 답함 입술(1802, 순조2년, 선생 41세) 12월

15) 연아(淵兒)에게 부침. 무진(1808, 순조8년, 선생 47세) 겨울

16) 「하피첩」 1첩, 禍福之理, 古人疑之久矣. 忠孝者未必免禍, 淫逸者未必薄福. 然爲善是受福之道, 君子強爲善而已.

17) 「하피첩」 2첩, 君子, 正其衣冠, 尊其瞻視, 凜默端坐, 儼然若泥塑人, 而其言論篤厚嚴正. 如是然後, 能威服衆人, 風聲所覃, 遂至久遠. 若惰慢俳優, 雜以諧談, 雖其所言深中理窟, 人亦莫之肯信, 生前不能樹立根基, 死後自然日就泯滅. 此事理當然耳.

18) 두 아들에게 부침. 계해(1803, 순조 3년, 선생 42세) 원일(元日)

19) 다산 시문집 제21권 서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사물잠(四勿箴)이란, 이천(伊川) 정이(程頤)가 지은 것으로 시잠(視箴), 청잠(聽箴), 언잠(言箴), 동잠(動箴)을 말한다.

20) 「하피첩」 2첩, 士大夫心事, 當如光風霽月 無纖毫菑翳. 凡愧天作人之事, 截然不犯, 自然心廣體胖, 有浩然之氣. 若於尺布銖貨, 警有負心之事, 即是氣餒敗. 此人鬼關頭. 汝等切戒之.

된다. 너희들은 지극히 조심해라. 근거가 없고 과장된 말을 하는 사람은 백성이 아무도 믿지 않는다.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일수록 더욱 말조심을 해야 한다.”²¹⁾고 하였다.

다산은 사람을 알아보려면 먼저 가정에서의 행실을 살펴야하고, 옳지 못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면, 자신을 돌보는 기회로 삼아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산의 자녀교육은 군자의 삶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산은 자녀들에게도 그 뜻이 그대로 이어져 후손들의 가르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2. 의식주생활관

의식주생활관은 의식주와 관련된 규범의식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유학에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겸소한 삶이란 자기 수양과 학문 그리고 도덕적 완성의 토대[26]가 된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다산은 의식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더 나아가 실천적인 노동을 통하여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성호학파의 근본사상이기도 하다. ‘손은 부지런하지 않고 입으로는 물리지 않고 먹기만 한다면 별레나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²²⁾고 하였다. 이러한 검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한 것은 15세기 말부터 집중적으로 사치를 금하는 검약령이 발표되고 16세기에는 수시로 금주책이 시행되었지만, 지배층의 향락을 막을 수 없던 시대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의 욕망과 사치는 탐욕으로 이어지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상황에 이른다. 이러한 것을 경계한 성호학파를 중심으로 한 자성과 더불어 선비로서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이 강조되었다. 지위가 없는 선비라면 가난은 일반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유배지에서 다산의 끈궁함은 당연한 것이었고, 다산 집안도 말할 나위 없이 검약이 필요했다.

음식의 섭취, 옷차림, 기거생활, 나아가 먹고 입을 것을 구하는 태도 등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몸에 익숙하도록 검소를 중요한 규범으로 강조했다는 것을 여러 기

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선행연구[11]에서는 이 부분을 《거가사본》에 기초하여 치가(治家)라고 하였다. 다산은 의식주생활에서 근검을 강조하면서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잘 실천할 것을 아들들에게 당부하였다. ‘검소가 무엇이나? 의복은 몸을 가리면 된다. 고운 베로 만든 옷은 해지고 나면 만고에 처량한 티가 나지만, 거친 베로 만든 옷[褐寬博]은 해져도 별 상관이 없다. 옷 한 벌을 만들 때마다 모름지기 이후에도 고운 옷을 계속 지어 입을 수 있는 지 없는 지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고운 옷을 계속 입을 수 없다면, 고운 옷을 해진 채로 입어야 할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고운 옷을 버리고 거친 옷을 취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음식은 생명을 연장하면 된다. 무릇 산해진미라도 입 안에 들어가면 바로 더러운 것이 되어버리므로,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남들이 침을 뱉는다’²³⁾라고 하였다. 의생활과 식생활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옷차림과 생명연장의 음식정도만이라도 족하다는 규범을 갖도록 당부하였다. 일상에서 속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자신의 입을 속이는 것은 잠깐 지나면 되므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궁한 처지를 대처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부유함이 있어도 몸을 다스리는 방법이므로 근(勤)과 검(儉)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또한 술 마시기에 대한 경계의 글도 편지글²⁴⁾을 보면 알 수 있다. 술은 입술을 적시는 정도로 마셔야 실수가 없으므로 절제할 것을 언급하였다.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면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케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기괴한 병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입에서 끊고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

한편 다산은 건강을 위한 섭생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산의 다시(茶詩)에서는 차(茶)는 술을 깨게 만들고 머리를 맑게 해주며, 이웃의 병도 낫게 해준다고 하며 차의 효능에 대해 자주 언급[24]바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식생활에서는 절제와 보신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21) 「하피첩」 2첩, 再此口業, 不可不慎. 全體皆完, 一孔偶滲, 猶是破甕, 百言皆信, 一語偶謊, 猶是鬼徒. 汝等切戒之. 語言浮夸者, 民莫之信. 貧賤者尤當認言.

22) 「星湖僊說」. 권 17 人事門 食少. 手不勤而口無饜. 忠獸何別

23) 「하피첩」 2첩, 何謂儉? 衣取掩體. 細而蔽者, 帶得萬古淒涼氣, 褐寬博雖蔽無傷. 每裁一領衣衫, 須思此後可繼與否. 如其不能, 將細而蔽矣. 商量及此, 未有不捨精而取疏者. 食取延生. 凡珍腴美鱗, 入脣卽成穢物, 不待下咽而後人唾之也

24) 「여유당전서」. 다산 시문집 제 18권/가계(家談)

다산은 유배지에서 머물렀던 거처를 사의재(四宜齋)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는 생각 용모 언어 동작의 네 가지를 의로써 규제하며 마땅하게 해야 할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다산에게 주생활이란 자신이 지향하는 생활의 철학을 지켜내는 상징적인 곳이었다. 인간은 주거환경에 의하여 그의 행동과 의식에 영향을 받게 된다 [5][6]. 다산이 생각하는 삶의 터전은 자연과 혼연일치가 되는 것이었으며, 고급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유배지의 삶이 궁핍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산이 머물렀던 사의재(四宜齋)나 다산초당을 보면, 그가 기거하는 곳은 곧 자연이었으며, 자신의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곳이기도 했다. 넓고 화려한 가옥이 아니라도 기거할 곳이 있고, 차나무와 좋은 샘물이 있어서 만족해 한 것은 다산의 차시(茶詩)²⁵⁾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아들들에게는 경제력이 안 된다면 한양의 근교에 남아서 채소를 가꾸어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다가 여유가 생기면 한양으로 들어가도 된다²⁶⁾는 매우 실용적인 주거 의식을 심어주었다. 자신의 분수를 지켜 주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았다. 다산의 의식주생활관은 사치를 배제하고, 근검하며,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3. 가정경제관

가정경제관이란 가정살림을 위한 재물을 구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의식과 규범을 뜻한다. 다산이 갖고 있었던 재물에 대한 관념은 청빈이었고, 자신이 가진 것을 수용하되, 스스로 움직여 노동을 해야 한다는 가정경제관을 함께 강조하였다.

다산은 '세상의 옷이나 음식, 돈, 물건 등은 헛되고 부질없고, 재물을 오래 간직하는 방법은 오직 못사는 친척이나 가난한 벗에게 나눠주면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는다'²⁷⁾고 보았다. '물질을 유형적으로 향유하면 장차

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지만, 무형적으로 향유하면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²⁸⁾는 것이다. 따라서 재물을 깊이 감추려면 남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렇게 하면 도둑이 훔쳐 갈 걱정도, 불에 탈 염려도 없고, 힘들게 운반하지 않아도 되고, 죽은 뒤에는 천년토록 이름이 전해지므로 큰 이익이라고 보았다. '재물이란 단단히 움켜쥐면 쥔수록 더욱 미끄럽게 빠져나가는 매기와 같은 것'²⁹⁾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경제 상황에 대하여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앞서 기술한 주생활관에서도 나타났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한편 가정경제관에서 중요하게 경계해야 할 바는 게으름으로 보았다. 게으름을 적으로 여기고 근면과 검소를 우선시 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게으르고 사치스러운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풍요롭게 살더라도 배고픔과 추위를 면하지 못할 것'³⁰⁾이라고 하였다. 다산은 자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글로써 가난을 구제하는 신념을 강조하였다. 재물을 남기는 것보다 올바른 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은 평생 쓰고도 남음이 있는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물질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올곧은 근검(勤儉)의 신념이며, 이러한 정신적 가치는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값진 것임을 뜻한 것이다. '나는 벼슬이 없으니 농장을 너희에게 물려주지 못한다. 오직 두 글자의 신령한 부적이 삶을 넉넉히 하고 가난을 구제할 수 있기에, 지금 너희에게 남기니 너희들은 박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하나는 근면[勤]이요, 다른 하나는 검소[儉]다. 이 두 가지는 좋은 전답보다도 나아서 한 평생 쓰고도 남는다.'³¹⁾고 한 것은 뜻하는 바가 깊다.

한편 근면에 있어서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산은 '아침에 할 일을 오후로 미루지 말고, 집안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맡은 바 도울 일을 돕고, 한 순간도 무료한 시간이 없는 것을 의

25) 「여유당전서」. 다산 시문집 제 5권 /유자 동산 서편에 그윽하고 예쁜 다산 천 그루 소나무 속에 흐르는 시내 하나 시냇물이 처음으로 발원한 곳 가만 깨끗한 바위 사이에 조용한 집 있다네 ... 차나무가 밀집하여 푸른 숲을 이뤘는데 ...

26) 「하피집」 1집 若家力衰落, 不能深入, 須甞止近郊, 蒔果種菜, 以圖生活, 待資賄稍贍, 便入市朝之中, 未爲晚也.

27) 「여유당전서」. 다산 시문집 제 18권/가계(家誡) 두 아들에게 보여주는 가계 世間衣食之需, 財貨之物, 皆是 幻妄空花. 服之則敝, 餌

之則腐, 傳之子孫, 則終歸蕩散

28) 「여유당전서」. 다산 시문집 제 18권/가계(家誡)

29) 「여유당전서」. 다산 시문집 제 18권/가계(家誡), 하피집 3집

30) 「여유당전서」. 다산 시문집 제 18권/가계(家誡)

31) 「하피집」 2집, 余無宦業可以田園遺汝等. 唯有二字神符, 足以厚生救貧, 今以遺汝等, 汝等勿以爲薄. 一字曰勤, 又一字曰儉. 此二字, 勝如良田美土, 一生需用不盡.

미 한다³²⁾고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군자가 가정을 다스리고 자신을 단속하는 방법³³⁾’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 손자에게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검소한 삶의 태도를 강조한 것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윤리로 생각했던 다산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산은 직접 몸을 움직여 노동하는 것을 즐거웠다. 이는 선비에게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노동을 하는 실천적 노력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다산은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농사를 짓고, 차를 재배했다. 다산의 떡차 제조법³⁴⁾은 여러 편지글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다산의 실용적인 가정경제관을 잘 보여준다. 항상 실천성을 강조한 다산은 아들들에게도 ‘시골에 살면서 과원이나 채소밭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³⁵⁾’이라고 경계하였고, 채소를 가꾸는 구체적인 방법, 양계법까지 알려주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기록하고 이론화하여 중국 육유의 《다경》이나 유혜풍의 《연경》과 같은 《계경》을 만든다면 좋은 일³⁶⁾이라고 하였다. 다산은 아들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실천적인 노력을 기대하였다.

또한 다산은 아들들에게 일가 중에 곤궁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누고 베풀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남에게 베풀지 않고 남이 먼저 나에게 베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으며, 다른 여러 집단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보답을 바라는 마음은 갖지 않도록 하라³⁷⁾는

가르침을 주었다. 함부로 이갓 돈을 쓰는 사람은 가산(家産)을 망치는 법³⁸⁾이라고도 하여, 분수에 맞는 가정경제관으로 현명한 소비를 하도록 당부하였다.

IV. 다산 정약용 가정생활관에 대한 논의

가정생활은 유기체적인 특성^[23]을 갖고 있으므로 가정을 둘러싼 주변의 근린환경 및 광역 환경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항상 변화한다. 따라서 한 가정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환경 뿐 아니라 시대적 환경과 배경에 대해 파악하고, 가정생활의 기본요소인 가족(家族), 가사(家事), 가도(家道)에 대해 이해해야만 한다. 이 중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치관이자, 교육관 등을 내포하는 가도(家道)는 가족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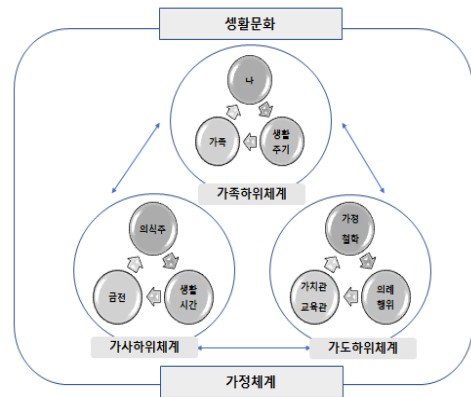


그림 1. 가정체계와 하위체계 및 요소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생활문화^[23]

이러한 관점에서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족의 위기를 경험했던 다산이 갖고 있었던 가정생활관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개인과 가족에게도 ‘가정생활관’에 대해 숙고하게 하며, 실존적 문제를 재고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헌고찰을 토대로 다산의 가정생활관에 나타난 가치와 규범적 의의를 다시 살펴보고 논의하고자 한다.

32) 「하피첩」 2첩, 何謂勤? 今日可爲, 勿遲明日, 朝辰可爲, 勿遲晚間, 晴日之事, 無使在苒值雨, 雨日之事, 無使遷延到晴. 老者坐有所監, 幼者行有所奉, 壯者任力, 病者職守, 婦人未四更不得寢. 要使室中上下男女, 都無一個游口, 亦無一息閑晷, 斯之謂勤也.

33) 「하피첩」 2첩, 雖貴富薰天, 土君子御家律身之法, 捨此二字, 無可着手處也. 汝等切須銘刻.

34) 다산이 69세(1830년)에 강진 백운동 이대아에게 보낸 편지에는 떡차 제조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모를지기 세 번 찌고 세 번 말려 아주 곱게 빻아야 할 걸세. 또 반드시 돌샘물로 고무 반죽해서 진흙처럼 짓이겨 작은 떡으로 만든 뒤라야 찰쳐서 먹을 수가 있다네.' 이외에도 1815년 3월 10일에 호의(縞衣)에게 보낸 편지, 「다산 계절목」에서도 그 기록을 볼 수 있다. 다산의 구중구로 떡차 제조법은 이후 보림사의 증로차 떡차가 되었고,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35) 「여유당전서」. 다산 시문집 제 18권/가계(家誡)

36) 「여유당전서」. 다산 시문집 제 18권/가계(家誡)

37) 「여유당전서」. 다산 시문집 제 21권/서(書)

38) 「여유당전서」. 다산 시문집 제 18권/가계(家誡)

가정생활관은 가족관과 의식주생활관, 가정경제관으로 구분하고, 이에 근거하여 [표 1]과 같이 그 의의와 실천적 재고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다산 가정생활관의 의의는 첫째는 가족윤리를 위한 자기관리와 절제, 둘째는 근검절약의 실천과 분수 지키기, 셋째는 순리적인 나눔과 베품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표 1. 다산 정약용 가정생활관의 의의와 실천적 재고

가정생활관		가치 규범	의의	실천적 재고	
제가 치가	가족관	효도관	효도	가족윤리 자기관리와 절제	말을 조심하라. 행동을 조심하라. 효를 실천하라. 가족 간에 화목 하라. 선함을 잃지 말라. 독서를 하라. 심신을 수양하라. 곤경에도 포기하지 마라. 독립적이고 당당 하라. 용모와 안색을 바르게 하라.
		부부관	화순		
		형제관	우애, 화목		
		자녀교육관	군자의 삶		
기가	의식주생활관	의식주생활	근검분수	근검절약 실천과 분수	항상 부지런하라.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라. 절약하라. 사치를 금하라. 술을 과하게 마시지 마라.
보가	가정경제관	금전관과 소비관	근검	순리적인 삶 나눔과 베품	환경을 탓하지 마라.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라. 순조로운 이치를 따르라. 분수에 맞게 지내라. 곤궁함에 대처하라. 사욕을 막아라. 나누어라. 베풀어라.

*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산의 가정생활관에 대한 의의와 실천적 재고를 문헌고찰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가 요약 정리하여 제시한 것임.

1. 가족윤리를 위한 자기관리와 절제

다산의 가정생활관 중 가족관은 자신의 수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효제에 대한 강조는 그의 많은 글에서 발견된다.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당부할 정도로 개인이 존재하는 의미는 가족 즉 부모자녀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근본을 지켜가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그 근본을 잇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잃는 것이라 여겼다. 부모에게는 효도를, 부부간에는 화순(和順)을, 형제간에는 우애(友愛)를 지키도록 했으며, 자식 된 자는 끊임없이 군자(君子)의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다산이 강조한 가족관의 실천사항은 언행주의하기,

부모를 곁에서 모시는 실천적인 효행하기, 가족화목, 선행 지키기, 독서하기, 심신수양, 곤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기, 독립적이고 당당 하라, 용모와 안색을 바르게 하라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실천성을 담보하지 않은 훈계나 가르침은 공허한 울림에 그친다. 다산은 이를 경계하며, 가족관을 관념으로만 남겨두지 않았고, 그 가르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해야 하는 실천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고 있다. 이는 ‘의식과 수행’의 격차를 축소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실용적 가르침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산은 자녀들에게 폐족(廢族)으로서의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만 현재 처해진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재차 당부하였다. 이는 오늘날 다양한 연유로 인하여 위기를 맞는 가족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다.

가족관이란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발현되어야 한다. 윤리와 규범적 속성을 지닌 가족관은 현실적으로는 엄격한 자기관리와 절제를 필요로 한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원초적이고 쉽고 편한 것과 안락한 것을 구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더욱이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나 서로 다른 지위와 역할부여에 따라 복잡한 관계망 속에 존재하게 되므로, 가정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삶을 영위하기는 어렵다. 개인은 태어남과 동시에 자신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연령과 성, 지위가 부여된 가족원과의 관계 속에서 종적 횡적 관계를 형성하며, 위계와 질서를 지키도록 요구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 본연의 욕구가 분출이 되며, 절제하기 어려운 자기중심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쉽다. 다산은 가족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관리하고 절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대한 효도(孝道)와 부부간의 화순(和順), 형제간의 우애(友愛)를 지켜가는 가족관은 가정을 질서 있게 지켜가는 기본적인 가족윤리로 작동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최근연구[27]에 의하면, 청소년이나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는 모두 가정이 화목할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들은 건강 이외에 신뢰, 이해, 인정과 존중을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한 질적 조건[28]으로 보고 있다. 즉 한국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화목한 가정을 제시한 것이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관계유지를 위한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자기관리와 절제가 필요하다. 이는 ‘가정’을 화목하게 지키는 개개인이 지녀야 할 태도이다.

규범과 질서가 혼란스러운 오늘날 환경에서는 이혼이나 별거, 가정폭력, 학대 등 가족문제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다. 현대 가정에서 보이는 복잡한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볼 때, 논자는 가정을 이끄는 뚜렷한 가도(家道)를 세우는 실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다산이 가족관에서 언급하고자 했던 자기관리와 절제의 노력은 가도(家道)로 의미 있게 재고되고, 가족 간에 지켜져야 할 규범과 질서로 재인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다산이 자녀교육을 위해 ‘군자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아버지로서 자녀를 곁에서 가르쳐야 할 것과 지속적으로 가계(家誡)를 강조했던 것은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로서의 자세를 재고하게 한다. 오늘날 자녀를 홀로 조기유학 보내거나, 부모의 직업적인 이유로 인하여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많고, 그에 대한 득실의 이견도 많다[29-31]. 그러나 환경이 변화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가 어린 자녀를 곁에 두고 가르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인성함양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바다. 다산이 유배를 떠난 환경에서조차도 자녀를 곁에 두고 가르치고자 노력했고, 편지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주고자 실천했던 자녀교육 자세는 현대에 보더라도 의미가 크다. 오늘날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일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평생도록 정신적으로 강건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 다산이 자녀교육관에서 강조했던 바는 언행을 조심하면서 선행할 것과 독서하고, 심신을 수양하도록 할 것 등이었다. 그리고 항상 당당하도록 호연지기를 가르친 것은 오늘날 자녀교육을 위한 지침으로도 매우 유익한 내용이다.

자신의 수양 뿐 아니라, 부모와 형제를 향한 효제의 실천, 나아가 부모로서 자녀양육과 교육을 위한 ‘자기절제와 관리’는 가정생활관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다.

2. 근검절약의 실천과 분수

삶의 영위에서 의식주생활은 기본이다. 다산은 의생활과 식생활에서는 검소함을, 주생활에서는 자신의 분수를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술에 대해서도 경계하였는데, 절제하여 마실 것을 강조하였다. 다산의 생존 시기는 물질적 경제적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였으므로, 최소한의 의식주로도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그러나 오늘날 의식주생활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고,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보다 나은 공간과 의복과 식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성인병과 비만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나타나고, 명품화·고급화되어 가는 의생활과 주생활은 동시대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가족들은 다양한 생활문제에 직면한다. 현대의 가정생활은 일면 풍요롭지만,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을 겪고 있으므로 가정생활에서 근검절약의 실천은 재인식되어야 할 바로 사료된다. 사회적 성공은 물질적 풍요와 소비로 이어지고, 오히려 물질풍요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작동되는 오늘날의 삶은 풍요로움의 패러독스(paradox)이다. 건강한 가정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과욕을 벗어난 근검절약의 일상생활관이 재고되어야 한다. 의식주생활에서도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정신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연구[32]에 의하면 자발적인 소비절제는 소비행복뿐만 아니라 일반적 행복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귀결될 때는 행복과는 멀어질 수 있으며, 스스로 근검하고 절제하는 노력이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절약에 주목[33-36]하고 있으므로, 근검절약의 실천은

풍요사회에서도 의미 있는 규범이자 가치 있는 행동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이 분수를 지키며 근검절약의 실천을 강조한 다산의 의식주생활관은 물질 풍요가 가져다준 일상의 물질중심화, 소비지향성, 물질로부터의 소외 등을 재고하도록 한다.

3. 순리적인 나눔과 베품

다산은 폐족이 되어버렸지만 자신의 가정을 자손들이 강건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였다. 다산은 가정경제를 올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순리를 따르는 근검을 강조하였으며, 나눔과 베푸는 것을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금전은 세상의 순조로운 이치를 따르고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곤궁함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사욕은 막고 나누면서 베풀라고 하였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하고, 나누며 사는 삶을 실천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남의 돈을 빌어 사용하는 대차의 위험성도 경계하였다.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행복의 조건으로도 '경제적인 안정'[27]을 우선시 한다. 소득증대와 재산증식, 저축과 투자, 가계관리의 효율성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가상화폐를 통한 새로운 거대이익창출 몰입 등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는 매우 달라졌다. 재물의 다다익선(多多益善)을 추구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소망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검소와 절약, 나눔과 베품이란 근대적 의식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대아(大我)적 관점에서 사회구성원들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성숙한 사회를 기대하고 있다. 성숙한 사회발전을 위해서 다산의 가정경제관은 긍정적이고 확산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다산은 물질의 축적은 더 큰 물질 추구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을 경계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는 것이 더 큰 재물의 축적인 된다는 역설적인 주장을 펼쳤다. 물질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신념을 강조했고, 그것은 근검이며, 나눔과 베푸는 것 이라고 보았다.

다산은 공직자들의 가르침으로 청렴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청렴에서 림(廉)이란 세 가지 즉 첫째는 재

물이요, 둘째는 색(色)이며, 셋째는 지위로 이 세 가지 중에 재물에 대한 것은 가정경제관에서도 재고해야 할 바다. 다산은 재물에서 사욕을 버려야 하는 것이 행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임을 이미 경계하였다.

또한 나누고 베푸는 것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는 오늘날 복지를 구현하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가치 있는 덕목으로 나눔을 거론하는 것과는 상통한다. 공존하는 지혜는 나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정책적인 자원의 재분배를 통한 복지의 구현을 통해서 재물의 순리를 따라야 한다. 오늘날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로서 나눔과 베품의 미학[37]이 제시되고 있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산은 재물이란 순조로운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화(禍)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미 갈파했다. 이러한 경계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뜻깊은 바다.

V. 결론 및 제언

다산은 주자(朱子)가 말하는 제가(齊家), 치가(治家), 기가(起家), 보가(保家)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논하면서 거가(居家)의 네 가지 근본이라고 하였다. 즉 화순(和順)은 제가(齊家)의 근본이요, 근검(勤儉)은 치가(治家)의 근본이며, 독서(讀書)는 기가(起家)의 근본이요, 순리(順理)는 보가(保家)의 근본³⁹⁾이라 하였다. 이러한 다산의 가(家)의식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아들과 주고받은 편지 글, 하피첩, 다산시문집 등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가족관, 의식주생활관, 가정경제관으로 재구성하고 해석하며, 그 의의와 실천적 내용을 제시하였다.

다산이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덕목과 더불어 그의 실천 사항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는 데에서 다산의 가정생활관은 현대사회에서 보더라도 실용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고 사료된다. 논자는 다산이 강조한 가정생활관의 의의를 가족윤리를 지키기 위한 자기관리와 절제, 근검과 절약의 실천, 순리적인 나눔과 베품으로 제시하였다. 다산이 곤경에 처한 자녀들에게 호연지기를 강조하고, 친척들과

39) 「여유당전서」. 다산 시문집 제 18권/가계(家誡)

도 재물을 나누고 베풀며 살도록 당부한 것은 가족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로 타인을 배려하거나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반성적인 태도를 일깨운다.

다산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유가치, 공동체 사회,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규범과 가치를 제시했다. 즉 가정생활관은 기본적인 것은 가족운리를 지키는 것이었지만, ‘자신의 가족이 잘 살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제한적인 차원을 넘어, 가족이 스스로 사회와 국가, 세계를 구성하는 일원이 되어 ‘공존 공생’ 할 수 있는 가정생활관을 제시했다고 사료된다. 또한 관념적인 가정생활관이 아니라,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가정생활관’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존공생을 위한 실천적 가르침으로 재해석하면 다산이 제시한 가정생활관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로 성장해 가는 데에 중요한 규범으로 작동하게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다산의 가정생활관은 앞으로 가정에서의 ‘생활교육’ ‘가정교육’ 나아가 ‘사회교육’으로도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가족관, 의식주생활관, 가정경제관 등 다산의 가정생활관은 교육콘텐츠로 개발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콘텐츠로 재구성하는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예비부부교육에서는 부부관, 부모자녀관, 형제자매관, 자녀교육관등 가족관을 중심으로한 교육콘텐츠 개발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라이프플랜 교육[38]이 제안된 바와 같이 의식주생활관, 가정경제관 등에 주목한 교육콘텐츠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콘텐츠의 개발은 다산 정신이 우리사회의 가정과 개인이 지향하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뜻으로 계승되고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산의 가정생활관을 중심으로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해 시론적인 차원에서 고찰하여 그 의의를 해석하고 논의 한 바에 의미를 둔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교육콘텐츠가 개발되고 적용되길 바라며, 그 효과성 연구에도 다각도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주영애, “신사임당의 생애에 나타난 셀프리더십과 어머니리더십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제80권, pp.169-201, 2014.
- [2] 이성진, *격몽요결로 본 울곡리더십 프로그램 모형 개발*,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3] 주영애, 원미연, “조선시대 규범서에 나타난 밥상머리 예절교육 내용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 제54권, 제4호, pp.415-426, 2016.
- [4] 박영숙,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에 관한 생활문화적 조명 : 여성문인과 실학자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5] 최배영, “「사소절」의 식생활규범을 토대로 한 대학생 인성교육콘텐츠,” 차문화산업학, 제38권, pp.209-246, 2017.
- [6] 김경미, *전통문화를 적용한 태교 콘텐츠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7] 콕미숙, 주영애, “청소년의 통일인성교육을 위한 전통문화와 차문화적용의 탐색,”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7권, 제6호, pp.272-286, 2017.
- [8] www.edasan.org
- [9] silhak.ggcf.kr
- [10] http://www.heritage.go.kr
- [11] 박미해, “다산 정약용의 가(家)와 가(家)의식,” 사회와 역사, 제103권, pp.119-152, 2014.
- [12] 박호중, *정약용의 가족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3] 손혜정, *다산 시에 나타난 ‘가족애’ 연구: 내면의 식 표출양상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4] 유정희, *다산의 자녀교육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15] 김정화, *다산 정약용의 교육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16] 이용형, *다산 정약용의 교육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17] 임미애, *다산 정약용의 가정교육에 관한 견해 검토*,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8] 이제희, *다산 정약용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9] 김승권, “한국가족의 위기성 및 취약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pp.6-19, 2012.

[20] <http://encykorea.aks.as.kr>

[21] 계선자, 이연숙, 이경우, 양숙희, 박미석, 최재순, 강기정, 김연화, 박남희, 이미선, 이영호, 임춘희, 차성란, 최미경, *가족과 문화*, 도서출판 신정, 2009.

[22] 김양희, 전세경, 문영소, 박정윤, 장은정, 김예리, 김효민, 백선아, 안진경, *가족과 생활문화*, 양서원, 2009.

[23] 주영애, *한국 가정의 생활문화*, 도서출판 신정, 2018.

[24] 김미옥, *조선시대 茶人들의 茶詩에 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25] 정민, *새로쓰는 조선의 차문화*, 김영사, 2011.

[26] 김선희, “가난, 병, 죽음 : 삶의 난관 앞에 선 실학자들,” *한국실학연구*, 제26권, pp.121-167, 2013.

[27] 김의철, 박영신, 박선영,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행복과 행복의 조건 및 불행에 대한 토착심리분석,” *인간발달연구*, 제19권, 제2호, pp.197-225, 2012.

[28] 박민자, “행복가족의 요소와 의미,” *가족과 문화*, 제18권, 제4호, pp.183-205, 2006.

[29] 권미경, “조기 해외 유학 이동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적응,” *인간발달연구*, 제17권, 제1호, pp.145-171, 2010.

[30] 강희숙, 문영주, 김동선, “나홀로 조기유학생의 유학적응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12권, 제3호, pp.119-142, 2010.

[31] 유준호, 홍은주, “조기유학에 의한 분거가족의 부모역할 및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제4권, 제1호, pp.39-59, 2012.

[32] 성영애,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과 행복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27권, 제2호, pp.233-254, 2016.

[33] 권치홍, 유정현, “주택점유형태별 주택에너지의 소비 및 절약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 제4권, 제4호, pp.395-406, 2013.

[34] 임기추, “가정부분 에너지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에너지절약행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에너지공학*, 제22권, 제3호, pp.262-269, 2013.

[35] 최태월, 서기원, “가정에서의 물절약 인식이 절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산업진흥연구*, 제1권, 제1호, pp.123-128, 2016.

[36] 계선자, 유경아, “청소년의 환경친화적 소비의식과 자원절약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4권, 제2호, pp.91-108, 2010.

[37] 김학순,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 나눔과 베품의 미학,” *대한가족계획협회보고서*, 제37권, 제1호, pp.8-9, 2004.

[38] 주영애, 백주원, 박현명, “1인 가구를 위한 라이프플랜 프로그램의 제안,” 2018년 가정학분야 춘계통합학술대회, p.203, 2018.

저 자 소 개

주 영 애(Young-Ae Ju)

정회원



- 1985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사)
- 1987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석사)
- 1992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정학(이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관심분야> : 생활문화, 예절교육, CS